

국제사회에서 한국 녹색성장 위상 드높일 때

김성우 칼럼



김연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산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병원 폭발이 있던 지난 17일 필자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출구 접경국인 이집트에 있었다. 세계은행이 이날 카이로에서 개최한 KGID (Korea Green Innovation Days)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KGID는 세계은행 내 유일한 녹색성장 신탁기금인 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올해 KGID는 아자이 방가(Ajay Banga) 신임 총재가 부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모로코 연차총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세계은행의 새로운 비전인 'To create a world free of poverty on a livable planet (살기 좋은 행성에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아래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연계가 핵심 의제였다. 세계은행 19개 사업팀과 이집트 중앙부처, 한국 16개 기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세계은행과 한국의 자금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성과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리더들과 공유했다.

이-팔 전쟁의 긴장감 탓인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정 관련 에너지 부문 피해 및 재건 발표에 우선 관심이 쏠렸다. 전쟁 발발 후 1년간 에너지 시설의 58%가 파괴돼 가용 에너지시설 용량이 36GW에서 14GW로 급감했고, 피해 금액은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전기와 열 공급 재개를 위해 변압장비와 이동형 발전기 등에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시작됐다. 그리고 향후 에너지 시설 재건 때 핵심 고려사항 중 하나로 EU기준에 맞는 고효율전력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및 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지원하는 녹색성장 기반의 재건을 꼽았다.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지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전쟁영향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부채증가, 기후피해까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녹색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모터, 보일러, 공조시스템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별 전기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설비효율 기준을 만들어 고효율설비 확산을 도모한 사례는 물론이고, ICT기술을 접목해 자원순환, 기후조기경보 및 기후정보관리(기후적응),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및 전자지불시스템(에너지전환), 이모빌리티 운영체계(친환경운송)를 시도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소개됐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시도는 미래 기술에도 적용된다. 이집트 환경부장관 및 환경공단 CEO와 별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조량이 한국의 두 배인 이집트는 재생에너지가 원료인 그린수소를 싸게 생산해 수출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 신재생발전 비중이 약 20%인데, 2035년 이를 42%로 높여 2040년에는 전세계 그린수소 중 5%를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화석연료시대 가

스수출국에서, 탄소중립시대의 수소수출국으로 변모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같은 시도의 뒤에는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이 2011년 설립한 KGGTF의 지원이 있다. 한국은 그동안 교통·환경·에너지·디지털·물 등 7대 분야에 걸쳐 총 217건에 1억1700만 달러 규모의 부상자원을 통해 190억 달러의 파이낸싱을 이끌어 냈고, 2024년부터는 60%를 증액할 예정이다. 돈보다 더 주목할 것은 정책과 기술이다. 고성장 경제구조 아래서의 녹색성장 경험으로 한국의 정책(탄소가격제)과 기술(에너지효율)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기초강연에서 '한국 녹색성장의 교훈과 기업투자 유인 방안'을 소개하면서 MENA지역에 한국의 탄소시장제도 도입과 친환경ICT기술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유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민간의 기후 대응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확보와 비용절감 등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다.

이집트에서 귀국 직후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이 주요 뉴스였다. 특히 사우디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을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아 행사장까지 가는 파격 대우를 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화석연료가 주 수입원인 국가이기에 녹색성장이 더 절실할 텐데, 마침 한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경험까지 있으니 어쩌면 이런 대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단·나이롱환자 '산재 카르텔' 척결해야

데스크 칼럼



송영택
산업부장·부국장

#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의 염좌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A씨는 총 180일을 입원한 뒤 지금까지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지출된 총 보험급여는 11억9410만원 달한다.

#B씨는 2015년 목 디스크를 시작으로 사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장폐색, 변비, 변실금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3년을 요양한 후 2018년 복직, 6개월 지나지 않아 다른 이유로 재입원, 2021년 디스크를 이유로 또 산재 승인 받음.

B씨는 8년째 휴직상태이며, 장해급여 6458만원, 휴업급여 연평균 2605만원, 이송비 연평균 1011만원 등 연평균 4604만원이 지급됐고,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하면 B씨에게 투입된 보험급여 총액은 6억6886만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월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최근 멀쩡하게 일어나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는 게 적발됐다.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금이 줄 줄이 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재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총 7만1306명으로 집계됐다.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436만원, 총 11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3년4개월, 평균 통원일수는 6년5개월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7876명에 불과했던 연간 산재 판정 건수가 2021년 2만435명으로 5년만에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산재 판정 건수가 이갈

이 급증한 이유는 문제인 정부 시절 산재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한 몫 했다. 2018년 만성으로 인정기준을 완화했고, 사업주 날인을 폐지했다. 특히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이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면허사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산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업성 암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이렇게 늘어난 산재 환자들은 공단이 운영하는 10개 직업병원의 운영수의 흑자전환에 기여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영업손실 546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기간 '집중재활치료' 같은 일반병원에는 없는 '산재 환자 전용 특별 수거' 등이 적용됐으며, '산재보험 의학자문 운영지침'에 '직업병원에서 제출된 '진료계획서'는 의학 전문성 평가 가능'이란 항목까지 신설됐다. 문 정부 5년 동안 산재 판정을 감독하는 각종 견제 장치 사라졌으며 일명 '산재 나이롱 환자'의 폭증을 가져왔다.

심지어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일반병원에서 수술한 산재환자를 직업 산재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산재 환자 상담사 특별수가 항목이 많은 직업병원의 재활 특진이나 입원 연장을 미끼로 직업병원으로 옮길 것을 유도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단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지사 실적에 따른 포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산재 환자 배오기와 일반병원 대비 산재 환자들의 직업병원 장기 요양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일선 직원들의 의견은 묵살당했다. 직업병원 부장들이 공단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감독자가 감독자가 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물론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 재활치료는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100% 내는 보험금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산재 카르텔'을 근원부터 척결하는 메스를 가하길 기대한다.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끝낼 때

기자의 눈



김기영 자본시장부지사
giryeong@ekn.kr

주식시장이 주가조작 사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동일산업·방립 등 5개 종목에 대한 '제2의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이어 4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영풍제지·대양금속의 동시 하한가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주가조작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월 발생한 일명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관련주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4월 21일 13만100원이었던 주가가 사태 이후 지난 27일 9890원에 마감했다. 하한가 직전 주가 대비 92%가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 역시 여전히 주가가 하락했다. 지난 27일 기준 동일산업은 77.4%가 하락했으며 방립(-72.7%), 대한방직(-84.4%) 등도 여전히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영풍제지 역시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4만8400원에서 지난 27일 1만6650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유일하게 상향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4943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계속 떨어지면서 미수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약 5000억원 상당의 미수금 전부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영풍제지 사태를 계기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 증권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시세 조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사안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에 키움증권이 이번 사태 이후로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는 "논란이 반짝 일다가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키움증권이 리테일 시장점유율 1위인 만큼 키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해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하다. 주가조작 사태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투자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다른 주가조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이 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서둘러 나서길 바란다.

에너지 경제의 힘, 삶의 근원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호 편집국장 신홍범 인쇄인 박태현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산업부 02-6749-3114 · 금융부 02-6749-3172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전국부 02-6749-3119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1989년 5월 26일 창간·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신문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윌페어뉴스
Welfarenews.net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sky life 188 KTolleh 219 SK B tv 504 LG 173

윌페어뉴스 Welfarenews.net <http://www.welfarenews.net/>